

지금 바로 신고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유해·위험 요소를!

안전문화 추진본부(17개 지역본부)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는 '98년 4월 1일부터 범국민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 주변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8. 4. 1~'99. 2. 28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3건이며 이중 327건이 처리되어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76건이 해당 기관 등에서 추진 중에 있는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 신고센터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일상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신고토록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곳을 말합니다.

신고방법

- 전화, 팩스, 통신(KISCO-NET), 우편, 직접방문도 환영합니다.

운영시간 및 문의사항

- 안전문화추진본부는 근무 시간 중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4시간 접수
- 경미한 신고 내용이라도 신고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별 안전신고센터로 문의 바람.

신고대상

- 불특정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동이용 시설물 (건축물 안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전기, 가스, 소방 등)
- 생활 주변의 유해, 위험기계, 기구 등 (공원의 체육시설, 놀이터 놀이기구 등의 불량, 육교, 지하도 등의 난간 등의 불량)
- 사업장과 관계된 내용은 지방노동사무소에 설치된 위험상황신고실로 신고

신고 건수

'99년 2월 28일 현재

분 야					
계	가 정	학 교	교 통	공 공	산 업
403	5	3	210	175	10

지역별 시민안전신고센터

- | | | |
|----------------------|------------------------|------------------------|
| 서울지역본부 02)501-6453 | 경북지역본부 0546)453-0049 | 전남동부지역본부 0662)681-1494 |
| 의정부지도원 0351)826-6091 | 포항지도원 0562)277-0732 | 제주지역본부 064)747-5431 |
| 경기지역본부 0331)221-4900 | 경남지역본부 0551)282-2544 | |
| 인천지역본부 032)583-4900 | 울산지역본부 052)258-0049 | |
| 안산지도원 0345)414-0049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8277 | |
| 강원지역본부 0361)243-8311 | 대전·충남지역본부 042)631-4900 | |
| 부산지역본부 051)529-4900 | 충북지역본부 0431)275-0836 | |
| 대구지역본부 053)358-4900 | 전북지역본부 0652)245-4906 |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본 부 02)971-4905
- 02)949-4905

안전문화추진본부(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여성

1999 3
통권 371호

- 특집1 '99년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업계획
- 특집2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 초청 정책토론회
- 여성정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깎꼬미 깎아서
승용차도 타고
금강산 여행도 가자

LG깎꼬미 사은대전체!!!



행사내용

▶ LG깎꼬미와 LG모젤백지를 동시에 구입하시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방법

▶ 전국 장식점(지점포, 인테리어점 및 LG바닥재/벽지 취급점)에서 LG깎꼬미와 LG모젤백지를 동시에 구입하신 후 장식점에 비치되어있는 LG깎꼬미/모젤백지 고객카드를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LG깎꼬미/모젤백지 고객카드를 보내실 때 반드시 재품을 구입한 장식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행사기간

▶ 1999년 3월 1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상품내역

구분	인원	상 품
특등	1명	EF소나타 2.0
1등	5명	금강산 또는 태백산 호수 무료여행권(1인당)
2등	10명	LG생활고9000
3등	100명	LG수액매트
깎꼬미상	1000명	LG생활용품

※ 자세한 내용은 본인부담합니다.

당첨발표

▶ 당첨자는 1999년 7월 중 개별통지합니다.

※ 당첨자 중 구입한 장식점을 통해 구입여부를 확인하여 LG깎꼬미와 LG모젤백지를 동시에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

LG깎꼬미 우드룸 / 향토방 / 큐빅 / 초이스 / 모노룸 LG모젤백지

www.lgchem.co.kr

본사 및 지방영업소 : 본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0번지 3773-7566-민서 671-3922-4-민동 542-6496-7-부산 801-2520-9-울산 269-7850-2-대전 265-4381-경기 03421-384-3118
인천 431-2296-7-북경 281-9688-홍콩 342-630-5631-5-제주 278-8541-3-광주 260-3670-1-전주 250-4351-2-순천 743-4400-2-고령 03771748-0545-제주 742-9780-4

월간 여성

1999년 3월호 통권 371호

목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C · O · N · T · E · N · T · S

女聲 ② 남녀차별 사례 시정 강화한다/ 차명희

특집1 ④ '99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업계획

특집2 ①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 초청 정책토론회

여성정책 ②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김혜련

세계노인의 해 기념 칼럼 ④ 아름답게 해로하기 위해/ 박배희

해외여성통신 ⑦ 여성의 성 상품화를 거부한다/ 김진영

협동회원단체를 찾아서 ⑩ 전라남도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문화 ⑫ 남성의 전쟁, 여성의 용기/ 옥선희

여성계 동향 ⑭ 최진숙

협의회 소식 ⑮ 출판홍보부

우리들의 광장 ⑯ 회원단체

남녀차별 사례 시정 강화한다



차명희(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장)

한국여성계의 큰 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올해로 창립4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여협은 여성문제의 의식화 및 사회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생활개혁, 인구·소비자·자원·환경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갖가지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여성의 역량을 키워왔다. 이제 여성단체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으로 직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남녀공동의 참여사회 구축"을 여성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여성정책 전담기구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기능을 부여했다. 출범과 함께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의 주류화(主流化),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지식·정보시대에 인적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며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계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을 여성정책 추진 기조로 삼았다.

출범 2차연도를 맞아 여성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중점사업을 펴나갈 계획이다.

첫째 남녀차별사례에 대한 시정의 강화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 등 사회 모든 영역의 남녀차별사례를 시정하고 피해자 권익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에 착수한다. 차별사례를 조사하여 남녀차별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 시정 권고 및 고발의 조치를 취하

며 피해자를 위해 소송지원도 하게 된다. 법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남녀차별의 금지 기준과 개선지침등을 마련하여 차별의 시정, 구제와 아울러 사회전반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남녀차별 예방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둘째 정치 행정부문에서의 여성의 참여확대이다. 유엔 권고 수준 30%, 세계여성의원 비율 13%에 비해 3.6%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여성정치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정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의 유권자 의식향상 사업에 주력하며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며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99년 23%)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셋째,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이다. 사회 각분야별 평등상 제정 시상,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남녀평등의식 교육,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식개혁 사업 등을 전개한다.

넷째 공공근로사업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의 취업능력향상과 직업의식 강화, 여성가장·여성비정규직 근로자보호 대책수립, 직업알선과 창업 등 적극적인 취업확대,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여성차별 방지 등 여성실업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지식기반사회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에는 여건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999년도 업무 계획이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 여성계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

특 집

1. '99년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업계획
4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여성운동을!
2.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 초청 정책 토론회
위기시대의 여성복지정책 방향

본회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40년 전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 여성운동의 첫발을 내딛은 본회는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성차별 의식을 해소하고 남녀가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며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제 40년간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본회는 여성운동 선각자들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여성운동의 지평을 열 어갈 것이다.

여협의 40년 성상을 정리하게 될 1999년도의 사업계획이 지난 2월 23일 정기총회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또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있는 여성복지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 초청 '위기시대의 여성 복지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4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여성운동을!

본회는 지난 2월 23일 제42차 정기총회를 갖고 '99년도 사업내용을 확정하였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본회는 4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여성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본회 중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주요여성정책책임자 초청 여성정책토론회, 전문가 워크숍, 16대 총선 대비 여성정치참여확대 사업, 정부내 여성정책기구 개편을 위한 중장기 활동 등을 펼친다. 또한 세계노인의 해와 관련한 여성노인복지증진 활동, 중·소기업 여성인력 수요조사 및 세미나,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소년·소녀 가장돕기, 소비환경실태 및 의식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조직관리사업

1. 창립 40주년 기념사업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게되는 본회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할 계획이다. 창립 40주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여성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21세기 여성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와 함께,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도 개최할 예정이다. 『창립 30년사』 발간 이후 10년간의 여협의 활동을 정리하는 '여협 30년사 이후 10년사'를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2. 전국 여성단체 지도자연수

여성단체 지도자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 여성단체 지도자연수가 올해도 4월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3. 회원단체 확대 및 유대강화

올해에도 전문직 여성단체를 회원단체로 영입하고 시·도여협의 협동회원단체 가입권유로 조직강화사업에 힘쓸 것이다. 현재 15개 시·도여협 중 13개 단체가 협동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또 본회 회원단체와 협동회원단체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이사·협동회원단체장 연석회의를 전국 여성단체 지도자연수와 별도로 개최하여 전국적인 여성단체의 활동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여성지위향상사업

1. 창립 40주년 기념 전국여성대회 (제36회)

매년 3,000여명의 여성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운동의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여성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는 제36회 전국여성대회가 9월중 개최된다.

창립40주년 기념대회를 겸해 예년보다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뛰어난 활동을 보인 여성인사에게 용신봉사와 올해의 여성상을 시상하고, 올 한해 부각되는 여성관련 이슈에 대한 주제, 발제강연에 이어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각계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며 초대손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는 '들어봅시다' 등으로 구성된다.

2. 주요여성정책책임자 초청 여성정책토론회

주요 정책 결정직에 있는 인사를 초청해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견해를 듣고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여성정책토론회가 금년에 6회 정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월 28일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을 초청하여 '위기시대의 여성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가진 바 있는 본 사업은 이어 '여성문화활동의 활성화',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방송매체의 역할', '통일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3. 전문가 워크숍

현 정부의 여성관련 공약사항 중 실천여부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우선과제에 대한 범여성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분야 여성정책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의를 통해 향후 우선순위 여성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발제 및 본과 토의, 종합토의로 진행될 전문가 워크숍의 초청대상에는 여성단체장, 여성국회의원, 여대 총장, 각 대학 여성문제연구소장, 각 당 여성국장, 여성학자, 관련부처, 여성중진언론인 등이 포함될 것이다.



제36회 전국여성대회 전경. 올해에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4. 16대 총선 대비 여성정치참여 확대 사업

2000년 총선에 대비하여 여성계가 요구하는 공약내용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정당명부제에 의거하여 30% 이상의 여성할당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펼침으로써 16대 총선에서 여성비율 30% 달성을 위해 주력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유권자 교육도 병행하여 유권자의 의식 고양도 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활동을 통해 여성할당비율 제고를 위한 연대사업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5. 정부내 여성정책기구 개편을 위한 중장기 활동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상강화가 여성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본회는 여성특위가 준사법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차제에 여성부로 조직을 개편해 여성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조정과 법령제안권, 부령제정권 등의 권한과 인력이 강화된 부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6. 여성주간 기념사업

7월 초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본회는 동기간동안 주요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세미나 등의 행사를 기획하여 널리 홍보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꿔나가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7. 여성관련 법, 제도의 정비활동

성차별적인 법, 제도 개선활동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앞당기고자 본회는 금년에도 인권법 및 남녀차별금지 관련법 보완을 위한 활동, 가족법과 성폭력 관련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8. 매스컴 모니터링을 통한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사업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남녀차별을 시정 촉구함으로써 건강한 현대 여성상을 구현하고, 매스컴에 나타나는 폭력, 퇴폐적인 모습 추방 활동으로 건전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84년부터 시작된 본회 매스컴모니터링 사업은 금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보고서 발간과 매스컴모니터 모집교육, 재교육, 제작자와의 간담회, 세미나



여성실업대책을 모색한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 여성인력 수요조사, 여성취업 및 창업 워크숍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등으로 이어진다.

9. 통일위원회의 활발한 활동 기대

통일문제와 관련해 통일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의 여성의 역할 확대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근로여성사업

1. 근로여성고발창구운영

여성근로자가 직장내에서 겪는 각종 불이익 상담 및 해결방안을 제시, 소송지원 활동으로 여성근로자 고충상담을 연중 실시한다. 전화, 팩스, 통신 등을 통해 상담을 받고 사안별로 변호사, 노무사로 구성된 자문단 지원을 받아 법률적인 구제까지 지원한다.

2. 중·소기업 여성인력 수요조사 및 세미나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수요도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느 분야에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여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직종개발과 이에 따른 여성인력양성 및 사회진출을 돕고자 한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500업체를 대상으로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분야, 여성인력활용실태 및 계획, 여성인력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수요에 적합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4월 중에 위의 조사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여성인력활용방안에 대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거쳐 시장수요에 맞는 여성유망직종 선정 및 여성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한다.

3. 여성취업 및 창업 워크숍

실직여성과 미취업여성들에게 실제적인 취업과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워크숍 과정을 개설하여 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유망한 직종소개, 알아두어야 할 법률교육, 대인관계 훈련, 취업과 창업성공사례분석을 통한 취업과 창업전략 등 취업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미취업여성, 실직여성,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5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4. 여대생 취업실태조사 및 세미나 개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 500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실태, 직업의식, 취업동향 등, IMF 이후 달라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여대생들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10월중에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대생과 기업에 각각 효과적인 취업대비전략과 효과적인 여성인력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 실직여성가장돕기 사업

실직당해도 실업급여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집나간 남편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장들의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가족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업가정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6.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전략을 위한 세미나

우리나라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제도는 기업주가 출산휴가비용을 부담하고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실시하고 있어 기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의 주된 요인

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계와 노동계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국민의 정부도 100대 과제에 이를 포함시켜 국가시책으로 채택하였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시행방안을 연구, 발표, 토론하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실현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함으로써,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를 공론화시키고 시행을 촉구한다.

7. 교육현장에서의 성희롱실태조사 및 토론회

교육현장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남녀평등한 사회문화정착을 위해 교육현장의 성희롱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선 초·중·고·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학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초·중·고·대학의 학생상담실무자, 여성학자, 관련기관, 성교육전문가 및 관심있는 일반인을 초청하여 11월에 '교육현장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구체적 성희롱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 교육기관에 건의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으로 채택, 교육하도록 한다.

소비자보호사업

1. 소비자교육

유전자재조합식품, 환경호르몬, 가정에서의 안

전 등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새로운 소비문화, 유통구조, 거래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총10회 실시한다.

2. 소비자모니터교육

훈련되고 의식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자질향상과 규제완화에 따른 각종 소비자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소비자감시단 활동을 전개할 신규 소비자모니터 교육을 실시한다.

3. 소비자보호세미나

과소비 문제와 불합리한 소비생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IMF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안적인 제도이며 소비전략이라 할 수 있는 대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4. 소비환경실태 및 의식조사

기업들의 경쟁수단에 대한 규제완화와 소비자의 선택의 다양화를 이유로 단순화된 경품제공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시장형태변화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를 조사한다.

5. 소비견전캠페인

나눠쓰고 바꿔쓰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원재활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소비견전캠페인을 실시한다.

6. 안전문화사업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1,400만명을 육박하여

양적으로는 통신선전국에 접어들었으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통신문화는 이에 뒤따르지 못해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주행중 이동전화 사용은 많은 안전사고를 야기시키므로 이동전화 사용과 관련된 교통사고 경험 및 간접경험 등을 조사하고 대중매체에 나타난 안전의식 불감증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7. 감시단 활동

규제개혁조치에 따라 규제완화된 각종 분야 중 식품, 농산물 등에 대한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소비자단체가 연대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자유화됨에 따라 주제가 주변의 단란주점 불법영업을 점검하기 위해 민관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롭게 개선된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시행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특별사업

1. 여성의 건전 소비생활 및 경제활동 유도

소비자의 의식과 소비행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소비생활을 주도하는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경제흐름과 경제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참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시각에서 여성문제 또는 사회문제와 연결시키는 내용으로 회원단체와 시도여협이 단체특성에 맞게 주제와 대상을 정하여 연중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진행된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을 통해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2.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소년·소녀 가장돕기

가족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직가정의 결손아동들이 탈선하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사회 지원망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소년·소녀가장결연사업을 확대하여 전국 6개 지역 여성단체협의회와 연대하여 각 지역 이웃어머니회를 조직하고 4억원의 예산을 들여 600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예정이다. 이웃어머니회 주요활동으로는 먼저, 소년·소녀가장의 결식빈도를 줄이기 위해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결손 가정 아동에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발달을 향상시키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비슷한 처지의 소년·소녀가장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외감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실시한다.

3. 세계노인의 해와 관련한 여성노인복지증진 활동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지난해 실시했던 여성노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노인문제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로 하여금 여성노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

회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와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건강한 노후생활과 장수과학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므로 노인건강식단 개발연구와 노인식단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4. 정보화 사회에서의 여성 주도권 확보를 위한 활동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간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한다. 본회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관련 DB를 더 많이 구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단체간 정보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보망을 단계적으로 갖추도록 협조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본회와 전국의 11개 시도여협의 정보화 사업을 담당할 실무자가 모여 정보화교육 사업방향 및 내용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워크숍에 참가한 단체 실무자는 자기 지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정보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5. 건전 가정경제 및 환경의식 고취 활동

경제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주부들이 가정경제를 잘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는 인식 아래 일상 생활속에서 올바른 소비습관을 유지하도록 가계부를 제작하여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가계부’는 가계부 쓰기를 유도하면서, 생활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가능한 환경보호 세부사항 및 생활정보 등 유익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국제관계사업

1. 국제연대, 국제회의 참가

지난해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NGO 자문기구 지위를 획득한 본회는 유엔 뉴욕사무소에 대표단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3월 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유엔 제43차 여성지위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NGO 자문기구로서 회의에 참석하며, 3월 22일부터 27일,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집행위원회와 10월에 파리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2. 주한대사부인 초청 간담회

주한 대사 부인들을 초청하여 본회와 한국여성계의 활동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연대방안을 모색하는 주한 대사부인 초청 간담회를 올해에도 12월에 개최한다.

출판·홍보사업

1. 월간 『여성』, 『Korean Women』 발간

남녀평등 사회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본회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고 여성단체간의 정보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월간 『여성』을 연 11회 발간한다. 올해에는 세계노인의 해 기념 칼럼을 시리즈로 게재하고 특집, 초점, 여성정책란을 통해 중요 여성계 이슈를 싣는다. 또한 1년간의 한국 여성계 활동을 정리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Korean



용산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여성가장 실직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실직자 재취업훈련, 사회문화 교양강좌 등을 준비하고 있다.

Women』을 1회 발행한다.

2. 홍보활동과 정보교류

본회의 사업을 일반 여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 일간지와 방송 여성담당 기자들과 연계를 가지고 홍보활동을 연중 실시한다. 여성·사회단체간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식지, 보도자료 등을 공유하고 인터넷과 통신에 본회 중요 사업과 월간 『여성』의 내용을 수시로 게시한다.

용산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개관한 본회 '용산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올해 초 여성가장 실직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이어 사회보험전문가, 미국간호사국가고시 자격과정, 생활공예과정 등의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밖에 사회문화 교양강좌, 다양한 주제의 특강도 준비되고 있다. 교육생을 위해 탁아방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법률, 세무, 집단 심리상담도 월 1회 실시한다.

위기시대의 여성복지정책 방향



기조연설

오늘 이른 아침,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여성단체에서 활동해왔고, 특히 여협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기획위원장과 부회장, ICW 보건상임위원회의 수석 부위원장 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 편안하고 푸근한 느낌입니다.

그간 저는 대학의 교수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활동, 그리고 4년간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여성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보건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는 여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부처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생활공간이 다양해지면서 모든 부처가 여성의 삶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복지부는 모든 계층의 다양한 여성과 다면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

여성보건복지정책

보건복지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인간의 전 생애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작년 집중호우 후 복지부는 '요람 전부터 무덤 후까지' 관장한다는 말

숨을 드립니다. 파주에서 많은 모자가 떠나려갔을 때 그 수습을 복지부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생 주기의 구비구비 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아가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보육시설입니다. 미래의 우리 국민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기르는 데 기반이 되는 임무를 하면서 동시에 여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운영합니다. 즉 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공식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365일, 24시간 여성들의 상담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미혼모, 윤락여성 등을 위한 시설을 통하여 요보호 여성들이 현재의 역경을 딛고 새 삶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 혼자 사는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집안에 어른이 없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 가는 어린 청소년 등을 위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반찬도 만들어 주고,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등의 일을 여러분과 같은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합하여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시대를 맞아 보건복지부에서는 '99년도에 복지도우미, 저소득아동생활지도, 가정해체 예방사업, 방문간호사업 등을 통하여 약 9,000명의 실업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부와 관련을 갖게 됩니다.

임신과 더불어 산전건강관리, 출산시 의료보험 적용, 출생 후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각종 예방접종 역시 병원과 보건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입니다. 청소년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성교육, 가족계획사업, 성비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의식교육 사업 및 인공임신중절에 방사업 등도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출여성 등을 위해 전국에 63개소의 여성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과 급박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의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1366' 상담전화를 전국 102개 전화권역에 설치하여 1년

위기시대의 여성정책

제가 처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과 '희망의 집' 등의 쉼터를 방문해 보니 그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남성들이 사업실패, 빚독촉 등으로 가정에서 피해 나와있고 그로 인해 받는 압박과 고통은 어느 면에서는 가정에 남아있는 여성들이 감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시대의 여성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실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남성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부담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 실업관계사업은 노동부에서 맡고 있지만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몰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몇가지 공공근로사업에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실업대책관련 차관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정부에서가 아니라 여성단체에서 제시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복지도우미, 저소득아동생활지도, 가정해체 예방사업, 방문간호사업 등을 통하여 약 9,000명의 실업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보건복지증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소관 법령 중 성차별적인 조항을 찾아 개정방안을 제시하며, 지난 10여년간의 여성관련 예산을 분석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6.25 이후 최대 난국이라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오고 이에 따라 정부재정의 위기가 오게 되면 복지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복지부문이 제일 먼저 위축된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도 자녀 딸린 기혼여성이 퇴출대상 1순위임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가지 다행한 것은 현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문제에 관한 한 뚜렷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조직을 축소해 가는 과정 중에서도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두고,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 복지부에서는 이제까지 정책에서 소외되었거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여성에 대한 관심을 정책의 중심으로

가져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책입안자의 사고나 관행, 사업내용, 여성관련 예산을 늘려가는 일 등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보건복지증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소관 법령 중 성차별적인 조항을 찾아 개정방안을 제시하며, 지난 10여년간의 여성관련 예산을 분석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대되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의 여

성회관, 사회복지관, 여성단체, 구민회관 등 1,600여개의 여성사회교육기관 관련 정보DB를 구축하고, 여성사회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운영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기시대 여성단체의 역할

사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동안의 여성단체 활동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하여도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시대를 맞아 여성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청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80조 예산 중 저희가 받고 있는 예산은 영점 몇 퍼센트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직성 비용이 많이 들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실업대책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성복지분야에만 중액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

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인 점은 위기가 우리부에는 기회가 되어서 복지부분의 예산이 작년대비 86%가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 중 여성 관련 사업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진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할 수 없는 몫을 담당해 주셔서 '작고 아름다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복지부가 여성단체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드렸지만 이제는 그런 식의 지원이 아니고 사업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즉,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보다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에 대해 프로젝트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등이 모두 여성단체에서 먼저 시작하고 이후 정부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제도화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전국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에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지는 않지만 여성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 아직 소수 여성만의 문제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대안을 개발하여 소규모로 시행해 보는 시험적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단체가 보다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의 파트너가 되어 오늘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여성보건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



박경숙

■ 박경숙(경기도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선 보건복지부의 여성실업대책인 고용창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여성의 취업자수 감소가 남성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실업자들에 대한 취업대책으로 보건복지부도 여성실업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선발원칙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사업과 data base 구축사업 등은 간호사자격소지자와 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를 우선으로 하여 갖 대학을 졸업한 신규실업자들을 중점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생활용품재활용사업, 저소득아동생활지도사업, 가정해체예방사업, 여성복지도우미 등은 저소득 여성실업가장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 9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실업실태 조사에 의하면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규대졸실업자도 아니고, 여성실업가장도 아닌

여성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소득층이면 어떤 실업여성이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은 고용창출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대책입니다. 직업훈련은 원래 노동부 소관이지만 여성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그 수혜대상이 대학을 졸업한 신규실업자와 저소득 여성실업가장에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실업여성들에게 좀더 대상자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여성회관과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강화시킬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민간단체에서 행하는 사회교육을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상당히 큼니다. 그런데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직업훈련이 훈련프로그램의 낙후, 자격증 취득률 저조, 전문적 직업상담의 미흡 등의 문제로 취업과의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여성에게 특히 필요한 창업훈련을 포함하여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모성보호비용부담의 사회화를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출산휴가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식은 오히려 여성고용차별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장려금제도를 운영하여 모성보호비용을 일부부담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에서 이 비용을 일부 흡수하도록 발전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 역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동안 보육시설의 확대에 5세미만 아동의 보육률을 60% 정도까지 상승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동수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에 뒤따르는 시간제·휴일

제, 24시간 보육시설, 영아 및 장애아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새해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실업자를 위한 보육비 지원도 중요한데 현재 저소득실업자에게 주어지는 50% 지원을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가정부담은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질환노인 등에서도 비롯됩니다. 그동안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질환노인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 단기보호 및 치매노인병원이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나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시설확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장관 : 실업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 잠

정적으로 생계를 보전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위기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일시적인 조치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과 취업교육과 알선 등은 노동부 소관입니다. 다만 복지부는 위기 상황에서 소득보전의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박경숙 교수님 지적대로 신규대졸자와 여성실업가장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복지도우미와 저소득아동생활지도, 생활용품 재활용 사업, 가정해체 방지사업 등은 자격에 관계없이 여성실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간호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 등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종의 자격증이 있는 여성이면 우선 순위를 부여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실업가장, IMF 이후의 신규 졸업예정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을 뿐 실업여성이면 누구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78개소, 사회복지관은 329개소가 전국에 있습니다. 종래 서예, 꽃꽂이 등 취미·교양위주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해 왔으나 갑작스런 경제난을 겪으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등 직접적인 소득획득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관들도 이러한 주민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요리사반, 제과제빵반, OA반 등 전문 직업훈련과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종래의 방식대로 답습하고 있는 기관들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하여는 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회복지관 스스로가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과 방법론 중심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분담화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2000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바뀝니다. 질병·부상뿐만 아니라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임신·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정의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에 대한 현행 의료보험급여는 임신 중의 질병치료와 출산, 출산후의 질병치료에 국한되어 산전진찰(임신중의 건강관리)과 분만 수당 등은 보험급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범위 확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산전진찰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를 실시하고 분만수당의 도입 등 소득상실에 대한 현금급여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특수 보육을 통하여 아동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코자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2003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정 자녀의 건전육성과 자립·자활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정부 지원계획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 1만 6,000여명에 대하여는 보육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기타 저소득층 자녀 6만여명에 대하여는 법정저소득 자녀 보육료의 4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노인복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이 중장기 사업에 재정적 지원만 확실히 된다면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무료·실비의 노인요양시설을 현재 69개소에서 2003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며, 현재 12개소인 치매요양시설을 2003년까지 50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평가제도 도입을 통하여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간보호소를 운영하여 치료, 간호, 수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기존의 보건소에서도 통합적인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치매대책을 위하여 「치매노인 10년 대책」을 수립·시행중에 있으며,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상담전문요원을 배치(98년 9월 현재 207개소에 492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금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Group-Home)에 대한 시설운영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한해경**(호남대 사회복지과 교수) : 우선 보건복지부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새로 신설됨으로써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정책담당관의 신설을 통해 일부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이고 잔여적인 여성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정책담당관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경제,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여성의 욕구변화를 파악하고, 욕구변화와 기존 정책간의 괴리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조사연구는 정부에서 직접 수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특히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들의 향락산업 유입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뿐 아니라 주부들마저 향락산업에 유입됨으로써 가족외해를 부추기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보건복지부의 여성복지정책은, 가출하여 이미 율락시장에 뛰어들어 여성들에 대한 사후대책적 복지서비스 마련에 치중하였으나, 앞으로는 빈곤과 향락산업 진출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다양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이를 위한 실태파악과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력 보장을 위한 주부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보건복지부의 정책 중 많은 내용이 여성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책변화에 대한 홍보가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제도가 여성의 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위기로 여성들의 향락산업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파괴를 부추기는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중 많은 내용이 여성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책변화에 대한 홍보가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 및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서비스의 체계를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여성들일수록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확대나 개선으로 인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도 중에서 여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과 관련되는 보건 및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서비스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김 장관 :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여성의 욕구변화를 파악하고 기존정책과의 괴리를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기 위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수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부 전체에 정책연구비(11억), 국민건강증진기금(117억) 등이 있고, 이를 조사연구비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는 이런 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위기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직장을 잃은 여성들이 유흥업소 등 향락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저도 누차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BRD에서 기금(30만불)을 받아서 경제위기로 인해 여성들이 향락산업에 들어가게 되는 실태와 이유, 배경, 예방책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정책연구 기금이 있고 다른 연구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연구

안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연금 수급과 관련해서는 '99년부터 이혼한 배우자도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수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이혼 후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혼인기간 5년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상대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하며, 이러한 분할연금수급권은 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연금 수급 권리가 소멸·정지되어도 계속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99년부터 육아휴직여성 등의 보험료 추후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육아 휴직중인 여성 등이 휴직사유가 해소된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연금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99년 4월부터 전국민연금이 실시됨에 따라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근로자와 여성 자영자 등이 국민연금에 당연 적용되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9%에서 3%로 대폭 낮춤으로써 전업주부 등이 적은 부담으로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보부족으로 여성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답답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

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광고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반 드라마에 소재로 주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전체의 공익과 관련된 사업은 여론에 호소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본회 회장) : 모든 여성에 관한 문제, 즉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또는 그 전부터 후까지 보건복지부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위기시대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의 힘이 합쳐져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하신 것과 같이 NGO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앞으로 여성의 복지정책과 관련한 사업에 여성단체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우리 서로에게 각인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질의는 서면을 통해서 복지부에 전달하여 성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질의 : 전국적으로 농촌지역 면, 리 단위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시설이며, 농업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인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가 폐지 또는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를 포함하여 복지시설의 양적 질적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현존하는 시설을 통폐합할 경우 농업인들의 보건의료시설 접근이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농촌지역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요? 또한 충남에서 현재 실시예정인 여성농업인 분만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두번째로 여성농업인이 육아와 농업노동의 이중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99년 정책을 말씀해주시지요.

■ 답변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폐지와 통폐합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치료중심의 일반 민간의료기관과는 달리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 건강증진, 재활 등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본 기능이 다소 무시된 채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이때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어촌지역에서 질병예방,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행정조직과 같이 일률적으로 조직의 10%를 감축한다는 방침에 대해 그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러한 방침을 각 시·도에 지침으로 하달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보건복지부의 방침과 달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개편을 추진하였던 19개 시·군에 대해 우리 부의 방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

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부의 방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농어민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적극적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요원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모집된 간호사 등 보건전문요원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보건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병, 의원과 같은 치료중심의 의료보장이 아닌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중심의 건강보장으로 전환하여 공공보건의료의 효율을 기하고 지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기관으로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분만수당 지급문제는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예산청에서는 도시영세사업장,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채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도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부에서는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범위 확대 차원에서 분만수당도입 등 소득상실에 대한 현금급여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감안하면 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별도의 확충계획은 없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유아보육프로그램(농촌용)을 보육종합정보망에 무상게재하고 실비로 보급해 보육시설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상순 애란원 원장 질의**: 우리사회는 성적인 문제에서 오는 책임과 비난은 미혼모에게만 묻고 있으며 미혼부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점점 더 공격적인 성 행태에 책임의식도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함으로써 남성들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성생활을 유도한다면, 이는 혼전 임신 및 낙태율과 나아가 미혼모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데, 이러한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를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한편, 현재 미혼모보호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역사회내의 많은 미혼모들 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경제위기 이후 입소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시설에 입소해야만 의료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재가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입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Outreach Program을 도입하여 재가하는 경우에도 의료보호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불필요하게 입소를 유도함으로써 오는 국고의 손실을 막으면서도, 이미 축적된 미혼모시설의 상담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내의 더욱 많은 미혼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 저비용고효율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도보호시설은 수용 및 이용시설화가 되어 있는데, 미혼모보호시설을 이처럼 이용시설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 **답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부장적 사고가 상존하여 우리는 아직도 가족 또는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성계에서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고,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등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혼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제도만 가지고 오랜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는 우선 민간단체 등에서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법제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혼모시설은 미혼모의 심리적 부담 및 비밀보장 등을 고려하여 시설입소 후 보호조치하고 있으나 미혼모가 시설의 개방적 운영을 요청해 올 경우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출산시 의료보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대한영양사회 질의**: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보육시설 프로그램의 확충, 그 중에서도 영양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육시설 유아의 34.2%가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제대로 먹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의 60%가 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도 보육시설의 급식시설 및 전문인의 미비로 원아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이 50인 이상 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는 바, 영유아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1세부터 6세까지의 성장발달에 따라서 식단 및 영양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100인 이상

시설에는 영양사 1인 배치가 바람직하며, 전체 보육시설의 85%를 차지하는 100인 미만 50인 이상 시설의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공동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하여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되, 동일 시·군·구안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양사를 두어 영양관리를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보육시설 등 소규모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 100인 미만 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영양사의 배치여부에 관하여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영유아의 균형 있는 영양공급을 위해서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급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나, 영양사의 배치는 보육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우리부 및 민간에서 개발한 급·간식프로그램이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IMF 경제상황하에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시설에까지 영양사를 두도록 강제하는 것은 보육시설의 운영난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으로 수용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100인 미만 50인 이상 시설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보육시설의 자율적인 배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보육정보센터에 영양사를 배치하여 소규모보육시설에 영유아의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
정책

김예련(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

지난 30여년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사에서 여성경제인들은 사회적인 주목을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경제인들이 수행해온 역할에 비해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경제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일찍이 선진국에서 여성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육성해왔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여성경제인들은 정치·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금년 1월 6일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5일 공포됨으로써 이제 여성경제인과 여성기업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경제주체로 커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법률은, '97년 10월 새정치국민회의 박광태, 김원길 의원 등 65인과 신한국당 남평우, 맹형규, 김호일 의원 등 24인, 총 89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본 법률의 제정의의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번째는 여성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법령이라는 점이고, 두번째는 현재 활동중인 여성경제인들에게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은 물론, 현재 활동중인 93만(1998년, 통계청 발표)의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아시아권에서 유일한 법체계를 갖게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자랑스러울 뿐 아니라 승진과 취업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에 직면한 모든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믿는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차별적 관행의 시정(제4조)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이에 대한 시정요청을 당해 기관에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시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차별적 관행을 근절토록 하였다.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제5조)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만 하며, 그 계획에는 ▲여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제6조)

여성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제5조의 사항들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제7조)

지금까지 여성기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통계가 없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애로가 있었던 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여성의 창업지원특례(제8조)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창업을 간접지원하며,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시 여성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자를 우선 지정토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실시(제9조)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판로지원 사업으로서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토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생산물품 구매증대 계획에 여성기업생산물품을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계획 작성시 중소기업청장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에 여성기업생산물품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금지원우대(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제13조, 제14조)

여성경제인의 공공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기업활동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하여 여성경제인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제15조)

협회는 여성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름답게 해로하기 위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이시형, 김창자.’

세상 돌아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여성이라면 이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나는 이혼하고 싶다.”라는 절규의 당사자인 바로 이분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화제가 되고 있는 70대 노부부 이혼소송의 주인공인 것이다. 사연을 보면 단순히 일회성 화제로 끝내기에 이분들의 사연 하나 하나가 너무 절실하다.

문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맞아 사연을 듣다 보면 이분들의 사연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년이혼’ 상담 해마다 증가 ‘97년 하반기 108건, ‘98년 131건

매년 상담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를 알아보는 상담소에서는 몇년 전부터 노년기 부부갈등의 증가와 노년이혼의 증가라는 지표를 읽어왔기 때문에 최근 노년 부부의 이혼소송이나 법원의 판결 등을 예의 주시하여 왔다. 상담소에서는 흔히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황혼이혼’이라는 말 보다 좀 더 객관적인 ‘노년이혼’이라는 용어로 이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이혼을 상담하러 왔던 60대 이상 내담자는 1996년에는 113명(2.6%)이었고, ‘97년에는 121명(2.7%) 이었다. 이중 여성노인의 비율은 ‘96년에는 80.5%(91명)이었고, ‘97년에는 79.3%(96명)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위의 통계는 완전히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 등을 문의하러 온 경우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부부갈등을 상담하러 온 내담자들을 포함하면 노년이혼 상담이 ‘97년 하반기(7월~12월)에만도 108건에 이른다. ‘98년 하반기에는 131건으로 ‘97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3%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노년이혼사유·신체적·정신적 학대, 배우자 부정, 경제적 갈등 등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문제

노년이혼 사유나 부부갈등의 사유는 3,40대 이혼사유나 갈등 사유와 별반 다르지 않

다. 배우자로부터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배우자 부정, 경제갈등 등으로 문제는 이러한 갈등 요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혼인기간 내내 지속되어 몇십년 이상 쌓여온 갈등이라는 것이다. 즉 노년이혼은 그간 원만히 지내다가 새삼스레 그 나이가 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쌓여온 갈등이 마침내 이혼으로 폭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그냥 해로하는 게 낫다 는 의식 존재

지난 1월 4일 서울 고등법원은 75세의 한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승낙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2년간 결혼 생활에서 할머니가 받은 모든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그간의 생활을 견디다 못해 큰딸 집으로 피신해 살고 있는 할머니를 절도죄로 고소까지 한 할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고령에 정신장애 탓이라며 오히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를 돌보고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법원은 이혼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할아버지의 부당한 대우가) 52년간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잘 참고 살아왔으니, 그냥 해로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관점이 우리 사회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데 있다. 함께만 살면 ‘해로’인가.

물론 ‘이혼’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노력하고 대화하며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로 함께 노력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화해나 조정을 통해 부부갈등을 예방하고 조절한 단계를 이미 지난, 현실적으로 이혼이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럴 때 이혼은 필요악이다.

2·30대 괴로운 일이라면 6·70대도 마찬가지

그럴 때 개인의 절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과거의 가치관에 얽매어 그 사람의 연령이나 조건에 맞춰 무조건 ‘해로해라’는 것이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함께 사는 것이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고통일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2,30대나 6,70대나 다르지 않다. 2,30대 괴로운 일이라면 6,70대에게도 괴롭기는 마찬가지고 오히려 몇 십년 간 참고 살아왔음에 분명한 노년기의 갈등과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다.

지난 40여년간 우리 상담소를 찾은 이들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 나라 여성들은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서 계층, 학벌,

직업,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남성들보다 억눌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20대에서 40대까지 고학력,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노년이혼은 여성운동의 새로운 과제

척박한 토대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평과 시각을 확대해야 한다. 바로 오늘날 노년이혼의 화제가 되는 이 상황이 여성운동의 지평을 확대해야 할 당위를 말해준다. 2,30대의 이혼은 특별한 화제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젊은이들이라면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을 왜 노인여성들은 모두 감내해야 하는지 이 사회에 엄숙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의 주류에서 비껴난 청소년이나 노년기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현실인 것이다. 사회의 진정한 진보란 약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여성운동이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남녀노소 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여권이 신장된다 하여 남성들이 괜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층, 연령, 학력, 도시와 지방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소외감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평등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

진정 건강한 가정과 사회는 개인의 고통 외면치 않는 사회

이시형, 김창자 할머니 이혼소송 이후 상담소에 온 할머니들이 풀죽은 목소리로 "이혼 소송해도 소용없다면서요?" 하고 물어올 때,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난감하다.

진정 건강한 가정과 사회란 무엇인가, 한 개인의 고통을 그리 쉽게 외면해 버리는 사회에서 전체 구성원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도 던져본다.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남녀노소를 떠나 누구에게나 진정으로 동등하게 보장되는 사회, 그 사회를 이루하는 데 우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여성의 성상품화를 거부한다

"매춘과 성 매매행위는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인간조건이 아니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침해다." 세계여성회의(WWC)가 여성의 직업매춘을 거부하고 매춘을 인권침해로 규정해 줄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다카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는 섹스관광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함께 인터넷의 성상품화 금지, 여성 인신매매 금지, 여성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 등 총 28개항의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다.

김진형(연합뉴스 국제경제부 차장)

세계여성회의, 매춘거부 다카선언 채택

세계여성회의(WWC)는 지난 1월 말 여성의 직업매춘을 거부하고 매춘을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해 줄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다카선언'을 채택했다.

WWC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사흘간의 회의를 마친 후 1월 29일 각국 정부가 매춘을 합법화하거나 매춘을 직업이나 오락, 경제의 한 분야로 규정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다카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매춘과 성(性) 매매행위는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인간조건이 아니다"면서 "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WWC는 이번 회의에서 섹스관광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함께 인터넷의 성상품화 금지, 여성 인신매매 금지, 여성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 등 총 28개항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방글라데시 야당 민족당(BNP) 당수인 칼레다 지아 전(前) 총리는 "같은 여성으로서 수백명의 여성이 가난 때문에 매춘하는 것을 볼 때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50개 여성단체 연합체인 여성매매반대연맹(CATW) 주최로 열렸는데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북미 아메리카, 유럽 등지에서 약 400명의 여성운동가가 참석했다. CATW는 지난 수십년 동안 20만명의 방글라데시 여성이 파키스탄으로 팔려가 성거래의 희생양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스웨덴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올 1월 1일자로 매매춘을 법으로 금지하는 '여성평화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경찰은 길거리, 안마시술소, 매음굴, 사설클럽 등 어디서든지 돈을 내고 성적 서비스를 받거나 요구하는 사람을 체포,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탈리아, '청바지 강간' 논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 이 이상한 판결 때문에 이탈리아 여

성의원들이 '청바지 시위'를 벌이는 등 이탈리아가 발각 뒤집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탈리아 대법원이 지난 2월 10일 "청바지는 입을 사람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벗길 수 없다"면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운전강사(45)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로자양(18)의 주장을 묵살한 데서 비롯됐다.

남성 일색인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으며, 피고측 주장대로 여성이 성행위에 동의했음에 틀림없다는 것. 이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이탈리아 여성계와 정계 및 문화계 인사들은 11일 일제히 '치욕적이고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울분을 터뜨리며 항의시위에 들어갔다.

특히 여성의원들은 '치마는 절대 사절'이라고 전부 청바지를 입은 채 항의하는 이색시위를 펼치며 대법원 판결의 번복을 촉구했다.

마레타 소코카 법무차관은 "대법원은 청바지에 붙은 지퍼의 존재를 상기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여성의 인권이 2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분개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다리오 포의 부인이자 실제 강간 피해자이기도 한 배우 겸 여권운동가 프랑카 라메도 청바지를 입은 여자라도 상대가 여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협해 강제로 눕힌 뒤 옷을 벗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핫라인전화를 운영하는 '텔레포노 로자'의 줄리아나 달포조는 "청바지를 여성의 정조대로 생각하는 중세적 판결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항의시위가 확산되자 이탈리아 대법원은 12일 판결문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카를로 마리아 그릴로 대법관은 "대법원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은 강간당하지 않은 여성, 혹은 강간당할 수 없는 여성이나 마찬가지로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코리에레 델라 세라』지(紙)에 밝혔다.

대법원 주심 판사 제나로 트리디코는 『라 레푸블리카』지(紙)와의 회견에서 청바지는 "입은 사람의 적극적 도움 없이" 벗길 수 없다는 판결문은 '유감스러운 구절'이나 다소 "과장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 중 남자가 410명이고, 여성이 10명이라는 사실이 불공정한 판결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강간범의 99%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을 변호했다.

그는 또 2년 10개월형을 선고받은 문제의 운전강사가 무죄로 석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대법원 판결은 옳다'고 주장했다.

미군 가정폭력 민간인의 5배

남성 위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군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빈번히 자행되는 무법천지 중 하나. 미국 CBS방송은 지난 1월 17일 시사프로 <60분>에서 미군 가정에서는 민간인 가정보다 5배나 많은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지만, 군당국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폭로했다.

<60분> 취재팀이 지난 '92~'96년의 국방부와 법무부 기록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이 기간중 가정폭력으로 희생된 군인 배우자들은 민간인 피해자보다 5배나 많은 5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군 당국이 가해 군인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비율은 5%도 채 안되고, 극단적인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마저도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캔터키주 포트 캠벨 미군사령부도 몇 차례나 포악한 가정폭력사건이 일어난 곳. 캔터키 지방법원장인 피터 맥도널드 판사는 폭행당한 군인 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린 명령을 군이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맥도널드 판사는 한 병사가 전 약혼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긴급보호명령을 어기고 여자를 살해한 사건을 들면서 "법원의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캠프 펜들턴 해병기지의 가정폭력 담당 자문관은 군당국에 폭력 장병들을 배우자와 격리하는 보호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 상급자들은 "안된다. 여기는 내 해병대고, 나는 그를 보호해야 한다"며 무시한다고 전했다.

한편 캐롤린 멀로니 하원의원(민주·뉴욕)은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군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국 여성앵커 성차별배상금 830만달러

부당한 성차별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미국 CBS 방송의 여성 앵커 재닛 팩킨포(48)가 소송에서 승소, 830만달러(약 96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1월 29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뉴욕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8일 "방송국 경영진이 성차별 조치를 행하고, 직장보장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성희롱에 대한 불평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취했다"고 판결. 팩킨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4년 팩킨포가 근무하던 CBS방송 코네티컷주 지국의 앵커는 모두 5명. 남자 둘, 여자 셋이었다. 방송국은 남녀 짝을 맞춰 뉴스를 진행한다는 명분 아래 여성앵커 1명을 퇴진시키기로 했다. 결국 여성앵커 중 가장 나이 많은 팩킨포가 해고 대상으로 점찍혀 이듬해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당시 코네티컷주 지국에서 연봉 25만달러를 받고 있던 팩킨포는 자신이 나이 많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당초 청구한 액수의 2배가 넘는 배상금을 손에 쥐게 됐다. 팩킨포는 "40대 여성 앵커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은 여성 방송인 모두의 승리"라고 기뻐했다. 팩킨포의 승소는 남녀 앵커가 한쌍을 이뤄 뉴스를 진행하는 미 방송계의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야당, 차기 대선에서 여성후보 지명

독일 야당인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동독 출신 여성인 다그마르 쉬판스키(55)를 지명했다. 기민-기사당 연합이 지난 1월 말 프랑크푸르트 근교 노이-이젠부르크 양당 합동지도부 회의에서 대선 후보로 지명한 쉬판스키 여사는 일메나우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정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 쉬판스키는 오는 5월 23일 대통령 선거에서 사민당(SPD)의 요하네스 라우(64) 전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와 맞서 남녀 성대결의 한판을 치르게 됐다.

2차대전중 파살된 개신교 목사의 딸로 태어난 쉬판스키는 동독 시절 공산당 가입을 거부, 통일 때까지 정교수에 오르지 못했고 이후에도 어느 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 '95년 뮌헨주 일메나우대에서 독일 최초의 여성 대학총장에 올랐고 이듬해 또 다른 남성만의 성역인 독일 과학원 원장에 취임했다.

현재로서는 사민당 라우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이제는 여성 대통령, 동독 출신 대통령을 맞을 때가 됐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업고 예상외로 쉬판스키가 승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후 독일 역사상 여성은 3차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으며, 동독 출신 여성 후보는 쉬판스키가 처음이다.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협동 회원 단체를 찾아서



오인호 회장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단체인 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여성의 역량을 사회 각 분야에 반영되도록 기여하고자 1974년 6월에 발족되었다. 현재 11개 단체, 33만여명의 회원들이 전남도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새마을부녀회 오양호 회장이 지난 '98년 4월 7일자로 16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현 전남 여성계를 이끌어 오고 있다.

IMF 구제금융 도입으로 시작되어 어두웠던 지난 한해, 전남여협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외화 및 국내 동전 모으기, 아나바다 운동 전개, 실직자 가정돕기,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교육, 여성지도자 임원 연수회, 환경보호와 여성의 역할, 생활용품 교환 및 바자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민간 차원으로 확산, 전개했다.

지난 11월에는 '국가위기와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1회 전남여성대회를 개

최했다. 국제통화기금 체제의 여성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이 대회는 전라남도 나승포 행정부지사를 비롯, 시·군여성단체 임원과 여성지도자 1,000여명이 참석하여 공직분야의 여성채용률 30% 확보와 기업의 여성근로자 채용기회 등 우선해고 현상에 대한 보호대책, 여성인권, 교육강화 등 7개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전 금성원 원장인 나봉래 여사께 제1회 동백대상이 수여됐다.

여성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 여성들이 잠



제1회 전남여성대회 전경

재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98년 7월 6일 전라남도 농촌진흥원 강당에서 300여명이 모여 '우리 농산물 살리기 및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입화, 개방화에 따른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우리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에 대해 우리 여성들이 주체임을 인식하고 문제제기와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곡류, 두류, 약초류 등 50여 품목에 대해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육안으로 비교도 해보고, 농산물 재배현장을 견학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98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생활환경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한·일 여성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는 양국간 여성교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어 1회는 '97년 10월 28일부터 4일간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소비생활에 대하여'라는 테마로 개최되어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회는 전남도에서 개최하여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 여성단체 교류를 확대해 가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8월중에는 집중호우로 전남도내에서도 피해지역이 속출, 피해지역과 대책본부를 위문하면서 성금을 전달했으며, 여성단체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10월에는 30여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농촌으로 찾아가 벼베기 봉사활동도 가졌다.

또한 8월 27일·28일 양일간에 개최되었던 영호남 여성단체 친선교류에 참가하였다. 광주, 전남, 전북, 경북, 대구 등 5개시도의 여성단체가 그동안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영·호남 여성화합의 장을 만드는



전남여협 사무실 현관식에서

계기가 됐으며, 결의문도 채택했다.

조직강화 활동으로 전남여협은 회원단체를 9개에서 11개로 확대함과 더불어 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고 상호간의 연대와 공존을 통하여 역량을 증대시켜 나갔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99년에는 더욱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소개된 매년도의 중점 사업을 바탕으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점인 국가와 지역의 경제살리기를 주제로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 영·호남 여성단체 친선교류를 전남이 주최할 예정이다.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환경교육, 건전한 소비생활운동을 강연이나 세미나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펼칠 예정이다.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전개하여, 여성의 고급인력들이 사회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남여협은 25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여성들이 각자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남녀 동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남성의 전쟁, 여성의 용기

옥선희(비디오 칼럼니스트)

스 티븐 스피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테렌스 말릭의 <썬 레드 라인>은 2차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로 곧잘 비교의 대상이 되곤 한다. 흥행이라면 세계 어느 감독도 부럽지 않을 스피버그는 작품성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은 감독임을 입증하기 위한 작품들도 꾸준히 발표해왔고, <라이언>은 흥행, 비평 모두 좋은 성과를 얻었다. 말릭은 <배드 랜드>와 <천국의 나날> 단 두 편으로 거장 반열에 올랐다가 20여년의 은둔 생활 끝에 <썬 레드 라인>을 발표하여, 철학적인 영화관이 여전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두 전쟁 영화의 연출 관점, 전쟁에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두 감독의 성향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지만, 전쟁이 남성의 놀이임을 일깨워준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다. 전쟁 발발의

원인은 역사와 사회, 국가, 민족 등으로 거창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남성들의 지배 욕구 배출이 아닌가 싶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자원을 얻기 위해 내 민족과 타민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전쟁 아닌가.

전쟁 영화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맡아 왔는가. 후방에서 걱정하고 기다리거나, 휴가 나온 군인의 잠깐 연애 대상이거나 성적 놀이 대상 정도였다. 간호원이나 스파이는 그나마 적극적인 여성상이다. 남성이 주도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 해도 신념을 갖고 전쟁에 참여한 용감한 여성상이 최근엔 등장한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책이겠지만 그래도 반갑다. <포화 속의 용기>(CIC 출시)와 <린다 해밀턴의 희생>(CIC 출시)은 <The Rescues : Stories

of Courage>라는 제목으로 기획된 TV 연속물 중 <Two Women>과 <Two Couples> 편을 비디오로 출시한 것이다. 1977년에 만들어진 이 연속물은 게이 블록과 말카 드루카가 나치 박해로부터 살아남은 유럽의 유대인 이야기를 수집하여 엮은 책 『Rescues : Portraits of Moral Courage in the Holocaust』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나치의 눈을 피해 유대인을 숨겨주고 탈출시킨 용감한 여성들. 적게는 한명에서 많게는 수십명까지, 목숨 걸고 유대인을 도왔던 보통 사람들에 관한 실화는 낱말이 수집되어 바브라 스트라인센드와 같은 유대 영화인들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나치에게 박해받은 유대인에 관한 영화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작은 일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영

화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유대인의 집요함에 새삼 놀라게 된다.

<마슈아> 편의 여주인공 바벨렌스키(엘리자벳 퍼킨스)는 바르샤바 명문가의 가정교사였다. 독일군 침공으로 유대인인 주인 부부가 죽자 자신이 맡아 가르치던 소년과 러시아 국경 지대로 숨어들어 독일어 번역을 하며 살아간다. "유대인은 없애버려야 할 더러운 쥐"라고 말하는 친위대로부터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던 바벨렌스키는 전쟁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쳤고, 이스라엘 정부는 그녀를 위한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자전거 탄 여인> 편의 여주인공 마리(셀라 워드)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 몽타반에서 주교를 도와 유대인들을 위한 신분 위조, 유대인들의 수녀원 분산 수용, 편지 전달, 폭탄 운반 등의 위험한 일들을 수행했다. "당신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싸운다"고 고마워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보호해줄 유대인들이 있다는 게 고맙다"고 답했던 용감한 여성. 전후 정부로부터 레종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린다 해밀턴의 희생>은 두 여성의 회고조 내레이션으로 전개된다. 팀 헌터가 감독한 <아트와 요체보스> 편은 암스테르담이 무

대다. 아트(마틴 도노반)와 요체보스(다나 딜라니) 부부가 자신들의 집에 3,40명씩의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탈출시키는 숨막히는 나날들. 수시로 가택 수색하는 나치의 눈길을 피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과 가짜 통행증을 만들어 자유를 찾게 해준 부부의 노력, 특히 요체보스의 기지와 용기는 놀라움 그 자체다. 요체보스의 어머니가 "네 아이들과 저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찌겠니"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답한다.

린 리트만 감독의 <마리 타케> 편은 벨기에의 자마이겐이 무대다. 독일군에게 포로가 된 아버지를 둔 소년들을 모아 가르치는 카톨릭계 학교 운영자인 에밀(알프레드 몰리나)과 타케(린다 해밀턴) 부부. 에밀이 유대 소년들을 몰래 데려오자, 아이가 없는 타케 부인은 처음에는 무척 섭섭해하고 위험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두려움에 떠는 유대 소년들을 돌보며 차츰 사명감을 갖기 시작하여 3,40명의 아이들도 마다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시간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던 유대계 어린이 보호, 전후, 텅빈 기록사에서 외로움을 토로하기도 하나, 1988년 세계 각국에서 당시 학생들이 찾아오는 행복을 맞은 후 이듬해 눈



<린다 해밀턴의 희생>중에서

을 감았다고 한다.

토마스 마이클 도넬리의 <사랑의 용기 Garden of Redemption>(CIC 출시)는 이탈리아의 전원마을 발리아노에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아름다운 아가씨 아드리아나(엠베스 다비츠)의 회상을 담고 있다. 레지스탕스였던 애인을 잃고도 곳곳이 싸웠던 아드리아나는 모두를 비겁하다고 욕하는 파올로 신부가 어떻게 비밀 임무를 수행했으며, 자신을 독일군의 위협으로부터 탈출시켰는가를 후손들에게 들려준다. 신의 뜻만을 실천하며 살려왔던 소심한 신부에게 엄청난 용기를 불어넣어 준 아드리아나의 신념은 신부가 충살당하던 그 아침처럼 선명하고 환하다. **홍**

여성계동향

기업들 성희롱 예방교육 열기 '후끈' 정부,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무리한 술시중, 음담패설, 성적농담 등 '블랙리스트'

기업들이 직장내 성희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직장내 성희롱의 책임을 사업주 책임으로 규정 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 1월 6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이후 예방대책마련에 분주한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서두르고 있는 곳은 현대, 엘지, 삼성 등 대기업 계열회사와 여직원들이 많이 몰려있는 백화점 같은 유통업체들.

"남자직원들이 회식자리에 가는 걸 불안해하고 있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하는 이들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은 "직장내 성희롱 개념 자체를 몰라 불안해하는 직원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오히려 먼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불안해하는 직장인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는 2월 10일 「성희롱 예방지침서」를 최종 확정, 공표했다. 고령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이 지침서엔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의무사항,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의 유형 등이 자세히 실려 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어나 행동에는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육체적 행위와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무리한 술시중 등의 행위가 속한

다. 하지만 민간 여성단체에서는 노동부의 지침에서 음란한 눈빛을 성희롱 행위에서 제외시킨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파를 던지는 행위'를 성희롱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또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연 1회 이상으로 교육의무를 최소화하고 예방교육내용도 기업형편에 따라 홍보물이나 사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비판받고 있는 대목.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측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지침"이라며 "예방교육 의무 횟수를 2회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사보 홍보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교육방법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장관 여성부단체장 할당" 주장 국민회의 주최, 여성공무원 발전정책 세미나

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옥두)와 여성위원회(위원장 김희선)가 지난 1월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마련한 여성공무원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 건의가 쏟아졌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김원홍 박사(한국여

성개발원 연구위원)의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방안. 첫번째는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의 25% 목표를 설정안이다. 공무원의 최고위직인 각료 및 정무직은 공무원이기 보다 정치인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 여성의 정치참여증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할 조치라는 것. 또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30% 목표제도 제기됐다.

지방자치의 성격이 생활정치로서 여성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여성부단체장의 할당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확대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토록 하는 제도를 활용해 매년 일정비율의 여성을 승진토록 하고 또 특별채용과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화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해 여성공무원 세부목표비율을 이뤄나가는 것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소개됐다.

이밖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배치 및 순환보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전입할당제 ▲인사결정부서에 여성참여 확대 ▲근무평점제도 및 승진할당제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김 박사는 주장했다.

대우건설 30세 이상 여직원 사직강요는 '부당' 서울지노위, 대우건설 부당해고 판정

대우건설(대표이사 한용호)이 지난해 30세 이상의 여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지목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성차별적인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여직원에 대해 남성사원, 대리급 선정기준 연령 40세보다 현격히 낮은 30세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31조 2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8조에 명시된 성차별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또한 상사의 반복적인 사직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직

원을 제출한 진의 의사표시가 아님에도 사직원을 수리해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제2건국운동에 여성들 적극 참여" 당부

김대중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는 1월 21일 여성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여성계 대표들과 올해 여성분야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의 건설을 위해 여성들도 새로운 사고와 행동으로 신지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제2건국운동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모임에는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 한영애 국민회의 의원, 윤후정 여성특위 위원장 및 여성특위 위원 이계경, 장필화, 최영희, 지은희씨, 이영애 특허법원 부장판사, 장명수 한국일보 주필, 김선주 한겨레신문 출판본부장 등 62명이 참석했다.

제2차 동아시아 여성정치포럼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이사장 김정숙)가 유엔개발계획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후원으로 2월 9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제2차 동아시아 여성정치포럼을 열었다.

'동아시아 여성의 정치참여: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몽골, 대만 5개국 보고서가 발표됐다.

참석자는 린다 미란다 아·태여성정치센터 사무총장, 마 애진 대만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이영애 단국대 교수 등. 지난해 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비

정부가구위원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한 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98년 8월부터 유엔개발계획과 아·태 여성정치센터의 협력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정치성평등 프로그램'을 위한 기본연구: 여성정치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능력 과제 분석과 지역협력'을 수행중이다. 연구결과는 2월 25일부터 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지역회의를 거쳐 3월 말 마무리된다.

지역별 성평등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동아시아 지구엔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본의 여성연대기금, 중국의 북경대 여성문제연구소, 몽골의 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운동, 대만의 여성정치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

게이 맥두걸 보고서 한글판 나와 정대협 국회 위안부 문제연구모임 엮어

지난해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 산하 소수자에 대한 차별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에 제출된 게이 맥두걸 보고서 전문을 한글로 볼 수 있게 됐다. 맥두걸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은 일본에 있고 이에 대한 공식배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윤정옥·김운옥)와 국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모임(대표 이미경 의원)이 최근 발간한 여성과 인권 관련 유엔 자료집은 맥두걸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 한글판과 영문판을 차례로 실고 있다.

자료집에는 이밖에 '94년 제출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와 국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모임 및 정대협의 소개도 실려있다.

국회 여성특위 '소식지 8호' 정기국회 여성관련 발언 지상중계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 여성특위 활동을 결산한 여성특위 소식지 8호가 나왔다. '여성의 사회참여, 선택 아닌 필수'를 주제로 한 오양순 한나라당 의원 기고문을 표지로 한 이번 소식지는 여성특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여성특위 의견서를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정기국회 여성관련 발언과 여성특위 지상중계를 특집으로 실고 있다.

여성특위 의견을 담은 법률안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특별법」, 「민법」 중 개정법률안,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이밖에 특위 위원 간담회, 전현직 여성국회의원 및 장관회의, 여성단체와의 정책간담회를 소개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관 첫 여성 외교통상부장관 보좌관 임명

강경화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관이 최근 첫 여성 외교통상부장관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특채이기에 더욱 더 화제를 모은 강 신임보좌관은 연세대 정법대 졸업 후 세종대 영문과 교수, 국회의장 국제비서관 등을 거쳐 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발탁됐다.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지난 6월 김대중 대통령 방미시 정상회담 통역을 맡아 역량을 발휘하기도, 여성계에는 '95년 북경 유엔세계여성회의 이후 국제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명숙 전 여연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선출

한명숙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참여연대

5차 정기총회에서 김종배·박상중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간 참여연대가 남성중심적 조직이란 비판을 의식,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해 사회를 보는 좀더 균형잡힌 시각을 갖추고자 한씨를 홍일점 공동대표로 추대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체류중인 한 대표는 6월경 귀국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합류할 계획이다.

"보살핌의 공동체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행자 서울YWCA 신임회장

이행자 서울YWCA 부회장이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2년간 서울Y를 이끌 지도자로 뽑혔다. '56년 Y-턴 활동으로 Y와 인연을 맺은 이 신임회장은 이대 영문과 졸업 후 미국 유학중 현재의 남편을 만나 전업주부로 지내면서도 예전 Y활동으로 맛봤던 자원봉사의 기쁨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미국 교회를 방문한 한국여성정치연맹 김현자 총재를 만나 귀국 후 Y활동을 적극 권유받게 됐다.

현재 이 회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올 6월 준공될 서울YWCA회관과 이에 따른 기금마련 문제. 또 서울Y 산하 2개 복지관, 3개 청소년회관, 2개 일하는 여성의집 운영 등을 통해 결식아동, 실직노숙자, 구타여성 등을 위한 백화점식 지원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실직자들을 판매원으로 고용해 도와주는 아나바다나눔터 활성화에도 강한 의욕을 보인다.

"10만 여성농민 결속 다지기에 힘쓸 터"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연임된 편정옥씨

"더 이상 회원 확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전국에 10

만명이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무엇을 할지, 각론적인 일을 할 생각입니다. 농가 인구 52%가 여성인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농촌문제는 곧 바로 여성문제예요."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2대 회장에 선출된 편정옥씨의 소감. 2대 회장이긴 하지만 연임이기 때문에 신임회장은 아니다. 한여농은 지난 '96년 7월 발족하면서 당시 강원도 여성농업인 회장이었던 편정옥씨를 초대 회장에 추대하고 2년 동안 그를 중심으로 전국 7개도와 90개 시·군에서 조직적인 뒷받침을 해왔다. 편 회장의 앞으로의 계획은 대략 세가지.

첫번째는 회원의 결속력을 다지는일. 현재 10만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지는 가장 큰 고민이다.

두번째는 시·군·읍에 여성농업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알리는 세미나도 준비중에 있다.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만해평화상 수상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가 1월 26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주최한 제3회 만해상 평화상을 수상했다. 만해상은 한용운 선생의 생명사상과 겨레 평화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최진숙(『여성신문』기자)

협의회 소식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축하회

본회는 금년 1월 초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을 축하하는 자리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1월 2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본 축하회에는 각계의 여성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해 자축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최영희 본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윤후정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정숙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동 법률의 제정에 기여한 국회의원 5명(장영달, 최연희, 류선호, 김한길, 이기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분들의 간단한 소감 피력이 있었다. 이어서 축하떡을 나누고 지은희 여연 상임대표의 건배사와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총 5장 39조로 구성된 이 법은 차별금지 영역을 확대하고 전담기관인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강력한 조사권과 시정권, 공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감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축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영희 회장

「위기시대의 여성복지정책 방향」 정책 토론회

본회는 지난 1월 28일 롯데호텔 사파이어 룸에서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을 초청하여 「위기시대의 여성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성계 인사와 관련기관, 언론사 등에서 110여명이 참석한 올해 첫 정책 토론회는 김모임 장관의 기조강연에 이어 패널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김 장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보육시설, 산전건강관리, 출산시 의료보험적용, 가출여성을 위한 여성상담소 운영 등 여성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저소득아동생활지도, 가정해체 예방사업, 방문간호사업을 통해 실

업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기시대에 여성복지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며 여성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박경숙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부분에 대해, 한혜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여성의 보건복지 증진부분에 대해 각각 질의하였다. 답변에서 김 장관은 보다 많은 여성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와 보육시설의 다양화,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정책 수립 기초조사, 대국민 홍보강화 등을 약속했다.



위기시대의 여성복지정책 방향'이 집중논의된 정책토론회 장면

제42차 정기총회 개최

본회는 지난 2월 23일 본회 2층 회의실에서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 재적대의원 158명 중 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1998년도 감사보고 및 사업보고, 결산보고에 이어 1999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통과가 있었다. 이로써 조직관리, 여성지위 향상, 근로여성, 소비자, 출판홍보, 국제관계, 특별사업 등 총 7개 분야의 본회 '99년도 사업내용이 확정되었다.



'99년도 본회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한 제42차 정기총회

용산 일·여,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본회 '용산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지난 2월 8일부터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취업훈련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가장, 또는 남편의 장애, 가출, 유기 등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 여성가장 중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훈련은 1개월 과정으로 텔레마케터와 산모와 신생아도우미 과정, 3개월 과정인 양재·의류리품과 선물 포장반이 운영 중이며 전체 훈련생은 140여명이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가 필요한 분들은 용산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749-9763~5)



손인실 증경회장 타계

본회 제8대(1982~1985)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손인실 선생이 2월 10일 새벽 4시 30분(한국시간) 미국에서 소천 하셨다. 향년 82세로 타계하신 고 손인실 선생을 추도하기 위한 추모예배가 대한YWCA연합회 주관으로 2월 12일 거행되었다.

고 손인실 증경회장은 본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국에서 세계여성단체협의회 23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뤄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냈으며, 여성계의 숙원사업이던 가족법 개정을 위해 여성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를 발족시키는 등의 큰 역할을 하신 바 있으며, 대한YWCA연합회 회장, 한국여성개발원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권수현 부장, 실장으로 승진 발령

본회 최영희 회장은 지난 2월 9일 권수현 여성정책부장을 여성정책실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권 실장은 '91년 본회에 입사하여 출판공보부 간사, 특별사업부장, 여성정책부장으로 일해왔다. ☞



From RAPA Publication: 1990/20, "Taking hold of rural life".

우리들의 광장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시도협의회장 신년 간담회 개최



신년 간담회를 마치고 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회원들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지난 1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만리장성에서 전국 15개 시도협의회장들과 함께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신영순 총재의 인사말에 이어 '99년도 원자력여성모임 본부의 중요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협의회별 '99년도 사업계획발표와 건의사항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원자력홍보활동의 중요성과 함께 제일선에서 홍보활동

을 하면서 경험하였던 애로사항 등에 대해 기탄 없이 토론했다.

이날의 오찬에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장곤 이사장을 비롯하여 신광일 실장, 안호현 실장, 그리고 여성모임을 담당했던 이혜수 대리와 앞으로 여성모임 업무를 맡게된 강옥선씨가 함께 참석하여 상견례를 겸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를 마쳤다.

끝으로 신영순 총재는 각 시도협의회장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99년도 새해에도 더욱 분발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전국 15개 시도 회장에게 팩스한대씩을 기증하였다.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조직 강화를 위해 시·도 간호사회 및 산하단체의 자치기반을 다지고, 중앙회의 조직 정비 및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2003년까지 5년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간협은 2월 4, 5일 용인 KNA연수원에서 '99년도 1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비롯, 대정부 활동 강화와 정보통신망 구축, 회원복지 증진 등을

포함하는 제4차 장기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2월 23일부터 열리는 제66회 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4차 장기사업계획(안)은 지부 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지부조직 모델개발과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지부로 이관해 나가는 동시에 중앙회 조직 모델 개발과 재정확보·업무영역 구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해 간호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4차 장기사업계획(안)은 간협 자료의 DB화, 인터넷 구축, 문헌정보 체계 구축 등 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해 간협의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문헌정보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홍보 및 출판사업 활성화, 연수원 운영 활성화, 대한간호협회 회관 신축, 국제교류 강화 등도 4차 장기사업계획에 포함됐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이 같은 장기사업계획(안)을 토대로 마련한 '99년도 사업계획과 38억 4,241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국시준비 순조: 학습목표 정리 끝내고 문항개발 준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간호사 등 국가시험에 쓰일 은행문항을 10월 말까지 전산입력하기로 일정을 마련한 것과 관련, 대한간호협회도 분야별 워크숍을 열어 학습목표를 개발하는 등 국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시원은 최근 17개 직종의 문항개발분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4월 말까지 은행문항 정리작업과 신규문항 개발계획 수립, 문항개발위원 구성을 마치고, 7월 말까지 신규문항을 개발할 후 8월 말까지 신규개발문항 정리작업을 마쳐 10월 말에는

은행문항 전산입력을 끝낸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간협은 이에 앞서 지난 12월 7일 아동간호학을 시작으로 전국 500여 간호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간호사 국가시험 교수 워크숍을 1월 28일까지 분야별로 열어 각 분야의 개념을 정립하고 학습목표를 정리했다.

간협은 국시원의 일정보다 한달씩 앞당겨 문항 개발작업을 추진, 학생들이 수험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문제집 등 자료를 적기에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한일여성친선협회

주한 일본대사 부인과의 신년 인사회



주한 일본대사 부인과의 신년 인사회에 참여한 회원들

지난 2월 4일 한국의 집에서 주한 일본대사 부인 오후라 노리고(小倉典子) 여사를 중심으로 한일여성친선협회 임원, 이사 30여명과 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인사회를 가지며 우호와 친선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스웨터 기증

본회는 지난 2월 10일 음력 새해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통해 정신대 할머니들께 스웨터 60벌을 기증하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여학사협회

새해 첫 시 낭송회

1999년 새해 첫 시 낭송회가 1월 20일 오후 2시 가회동 선재미술관 내의 한옥에서 열렸다. 창 밖으로 소복소복 눈이라도 내리고 있을 것 같은 창호지 문, 어린시절 발을 뺀고 앉아 친구들과 얘기하며 놀았던 온돌방, 그 치자 및 장판방 - 시를 읽기에 완벽한 분위기.

김영자 회장, 서울시지부 김선영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모여 피천득, 조병화, 김광균, 박노해, E와이리의 작품들을 낭송하였다. 시인의 부인과 누이가 반씩 나누어 낭송한 성찬경 시인의 '김치'는 마음 가득한 겨울 마당 깊이 묻어 둔 감장 김치 맛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었다.

영어공개토론회

한국여학사협회는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Elders'라는 주제로 영어공개토론회를 이연숙 포럼위원의 사회로 1월 21일 오전 10시 삼성생활문화센터 5층에서 열었다.

이번 공개토론회의 패널리스트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선자 교수, 강남대 고양곤 교수, 미국대사 부인

Christine Bosworth, 일본대사 부인 Noriko Ogura 씨였으며, 참석자들은 노령화란 문제는 사회적 환경과 관습 및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고 교수는 한국 사회의 노인의 문제점을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가족 및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사회 심리학적 고립의 경험을 들어 설명했다.

Noriko Ogura씨는 일본의 경우도 한국 사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출생률의 격감과 노령화의 전진으로 인하여 가족의 노인부양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40%의 노인이 혼자 사는 처지가 되고 있다고 했다. 노령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머지 않은 미래에 노인들이 전체인구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인의 해'를 맞이한 지금, 노인·노령화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열린 영어공개토론회

중앙부인회

성북 일하는 여성의 집 개관

중앙부인회는 지난 1월 28일 오후 2시 노동부가 지원하고 지정하는 '성북 일하는 여성의 집'(전화:

927-1325~7)을 개관하였다.

이날 개관식에는 노동부장관의 격려사(최성오 근로여성국장 대독)와 박영혜 여협 부회장의 축사 및 유재건 국회의원의 부총재의 축사가 있는 등 많은 내빈들과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본회 한정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북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여성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시켜 경쟁력 있는 인력으로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성전용 직업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건평 500여평의 규모로 '노인복지사', '피부 미용', '헤어디자인' 등 16개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본회는 지난 '98년 7월 '울산 일하는 여성의 집'을 개관했고 이번이 두번째다.



'성북 일하는 여성의 집' 현판식 장면

대한민국재향군인여성회

강원도 22사단 방문

대한민국재향군인여성회 정영숙 회장 외 임원 및 회원 80여명은 안보의식 고취와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22사단 소재 금강산 전망대를 방문하여 지역 대대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안보현장을 견학하였으

며 국군장병을 위문 격려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였다.



강원도 22사단 금강산 전망대 방문 기념촬영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26일 1999년도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박정자 한국부인회 충북지부장을, 부회장에 김점옥 대한조산협회 충북지부장, 서진석 한국자수협회 충북지부장을 각각 선출하고 '98년도 사업결산 및 '99년 사업계획을 심의하였다.



제26차 충북여협 정기총회 후 회원들과 함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초청 정책 토론회 찬조금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100,000원	장성자(여성특별위원회 협력조정관)	20,000원
안목단(본회 재정위원)	100,000원	윤순덕(자유민주연합 여성국장)	20,000원
하중순(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100,000원	손수덕(자유민주연합 중앙위원회 부의장)	20,000원
김안규(국제존타한국연합회 회장)	100,000원	서직자(울산광역시 가정복지과장)	20,000원
윤용숙(여성문제연구회 회장)	50,000원	김종희(자민련 중앙위원회 여성분과위원장)	20,000원
이옥기(본회 재정위원)	50,000원	윤연상(자민련 제3사무부총장)	20,000원
윤수자(본회 조직관리위원)	50,000원	신말선(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20,000원
이용옥(성동 봉사단)	50,000원	이인숙(국제존타서울1클럽 총무)	10,000원
김연우(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50,000원	연홍숙(국제존타한국연합회 이사)	10,000원
김숙향(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50,000원	특별찬조금	
정영숙(대한민국재향군인여성회 회장)	50,000원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 회장)	1,000,000원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50,000원		
심미자(서울시립대학교 교수)	30,000원		
박보희(한국사회정보연구원 원장)	20,000원		



오늘은 날지 않으리
(1993, 45.5 x 37.9cm)

표지

김부자 작 : 세종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작가는 22회의 개인전과 여인 3인 초대전, 서울 뉴-살롱전, '98 갤러리회화제 등의 초대전 및 150여회의 그룹전에 참가하였다. 대한민국예술대전, 한국여성미술공모전 등의 심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이현의, 한국여류화가, 군자회, 한국기독교미술인, 영토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직	책	성명	주소	전화
명예회	장	이연숙	성동구 행당동 삼부아파트 101-603	2281-2233
부회	장	최영희	양천구 목1동 목동아파트 505-501	648-2002
부회	장	정영숙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성원아파트 703-1802	(0342)713-3078
부회	장	박영혜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아파트 75-304	599-1942
부회	장	김취복	양천구 신정동 목동아파트 1325-1304	645-3246
서기	이사	김영자	성북구 성북동 330-352	766-5125
서기	이사	이경숙	광진구 광장동 362위커힐아파트 51-1104	447-9795
회계	이사	이요식	강북구 수유5동 510-20	902-1001
회계	이사	양은숙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7-106	416-7077
감사	사	김경애	광진구 광장동 위커힐아파트 31-1002	457-6534
감사	사	김옥환	안천시 북구 산곡동 370-71	(032)503-3493
조직관리위원장	장	김경오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307	584-1426
기획연구위원장	장	한정자	강남구 역삼동 영동아파트 47-107	558-5150
재정위원장	장	김상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산80-9	(0343)21-4224
국제관계위원장	장	하영애	광진구 중곡 2동 47-29	452-9277
출판공보위원장	장	윤용숙	성북구 정릉2동 508-182	913-4575
근로여성위원장	장	이정자	용산구 한강로 3가 40-316	780-3630
소비자보호연구위원장	장	김용자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7-1005	515-2602
교육위원장	장	박애주	강남구 역삼1동 670-12	567-3234
고령화사회대책위원장	장	김인숙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환경위원장	장	문수자	군포시 산본2동 모향아파트 936-404	(0343)96-9509
퇴폐문화대책위원장	장	은방희	서대문구 홍은동 265-90	394-2112
통일위원장	회	고기효	동대문구 전농4동 582-5	2213-6793
사무총장	장	오혜란	송파구 풍납2동 231-4	471-2397

회원단체

회원단체명	회장	주소	전화	팩스
대한간호협회	김화중	중구 생림동 88-7	2279-3618	2278-3763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여귀옥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771-4937
한국여학사협회	김영자	도봉구 쌍문동 423-44	993-2378	995-7811
대한조산협회	황금복	중구 장충동 1가 35-5	2279-1972	2265-5549
여성문제연구회	윤용숙	성북구 정릉2동 508번지 167호	914-0368	914-0369
중앙부인회	한정자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924-4878
가톨릭여성연합회	박애주	중구 명동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776-5618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김근화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오피스텔 1804호	704-2284	704-2285
한국여성복지연합회	염노미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프라자빌딩 1451호	712-0713	716-0744
한국여성항공협회	이경숙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3 하남빌딩 505호	785-6562	785-6564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하종순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588-5012
한국우먼스클럽	김인숙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8-4534	926-7416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은방희	서대문구 홍은동 265-90	394-2112	379-1906
국제존타한국연합회	김인규	성동구 성수동 2가 281-17	461-9018	462-9423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최옥자	종로구 광창동 537-9	708-4018	771-0258

회원단체

회원단체명	회장	주소	전화	팩스
대한약사회여약사회	박정자	서초구 서초동 1489-3 약사회관	581-1201	585-7630
우리웃음협회	이윤정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53-9 남옥치과 1층	(042)252-7033	252-7033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준련	영등포구 신길1동 115-14	833-1623	845-7925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김상순	마포구 도화동 378 도화 2차 현대아파트상가 4층	718-2503	718-2505
대한영양사회	노숙령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복빌딩 603호	842-2466	848-7655
국제여성승공연합회	문수자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796-3697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숙향	마포구 합정동 378-1 유일빌딩 101호	332-0914	332-0915
한국통일여성협의회	고기효	동대문구 전농4동 582-5	2213-6793	2248-5646
대한민국재향군인여성회	정영숙	송파구 신천동 7-13 향군회관 내	417-1383	424-4794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박정자	종로구 견지동 111-1	738-1250	738-1251
한국자수문화협회	박위자	강남구 청담동 경원하이츠텔 710호	3445-5356	3445-5356
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중구 목정동 18 대학문화원 306호	2273-7645	2278-2373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광진구 자양1동 219-5 서원빌딩 602호	3437-2440	455-7072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동대문구 용두동 118-108 서진빌딩 301호	926-9918	926-9970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	나성숙	마포구 동교동 154-8 용호빌딩 1층	335-7580	979-2264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김모주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2층 1호	738-5586	738-7576
천도교여성회본부	조혜숙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732-6867	723-7491
한국여성정보인협회	차운옥	강서구 등촌동 645-11	3662-9417	3662-9418
대한여성과과학기술인협회	오세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동 100 한국과학연구소	(042)860-7663	860-7669
한국생활공예협회	임기선	노원구 상계2동 339-2 남도빌딩 4층	951-0168	951-1241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신영순	마포구 도화2동 536 정우빌딩 304호	714-7451	714-7452
한국여성세무사회	신혜숙	서초구 서초3동 1497-16	522-8313	522-8314
한국여성발명협회	황소현	강동구 성내동 120-65 대산벤처타운빌딩 502호	476-4600	476-2503
주부전문인클럽	장승자	송파구 방이동 41-3 지역사회교육회관3층	424-8377	424-8378
한미문예소리협회	김수은	양천구 목6동 929	646-3305	646-3304
한국예절문화원	남상민	서대문구 홍은동 277-131	391-1988	391-1989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편정옥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 2층	3401-9204	3401-6549

협동회원단체

협동회원단체명	회장	주소	전화	팩스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강명희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2-42 신포동 동사무소 3층	(032)763-8354	763-8354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최정자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08 308호	(0652)231-9675	231-9676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김선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여성회관	(0331)249-5641	239-8813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윤정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484-21 여성회관 2층	(042)532-1610	535-0749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고옥자	춘천시 석사동 111-6 여성회관내	(0361)262-1306	262-8016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오택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 2가 116	(0431)55-7222	52-0923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김순신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915-27	(064)57-5141	57-5118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윤원호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오피스텔 511호	(051)257-0057	257-0058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신말선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170-2	(052)272-0088	274-0059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한창숙	대전광역시 중구 신화동 287	(042)482-2181	-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오양호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1-1	(062)364-2611	364-6913

편 · 집 · 후 · 기

2월 24일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바닥난 외화보유고로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IMF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했던 어려운 시기였다.

정부는 정부 출범 1년을 자축하며 기자회견을 가졌고 방송과 신문에서는 연일 지난 1년을 평가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업부도와 실업, 벼를 낫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국민들은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보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판에 짜인 듯 한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빛으로 가득찬 외화보유고가 아니라 앞으로 2년후, 10년 후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비전과, 내실 있는 정책이다.

월간여성 · 1999년 3월호 통권371호 (매월 5일 발행)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최영희
편집인: 오혜란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디자인: 큰기획(2268-6832)
발행일: 1999년 3월 5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140-013)
대표전화: 794-4560
팩스: 796-4995
천리안: KNCW 하이텔:kncw626
인터넷 주소: <http://www.kncw.or.kr>
E-mail: women@kncw.or.kr

편 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윤용숙
위 원: 고석주, 김유선, 나미레, 나성숙, 박금옥, 박윤희, 박혜란, 박혜숙
윤정희, 정인숙, 홍정희, 김신연, 박유정

담 당: 오순옥



『여성』 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매월 『여성』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전화: 794-4560

“앞은 안보이지만 희망은 보여요”

“전 훌륭한 조각가도 되고 싶고
피아니스트도 되고 싶어요.
눈은 안보이지만 손과 귀로 느낄 수 있거든요.”

비록 앞은 안보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밝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장애인 장영운 군. 영운이는 훌륭한 피아노 연주와 조각작품으로 이미 여러번의 입상경력을 갖고 있는 미래의 예술가입니다. 어려운 장애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내일을 곳곳이 설계해 나가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 소년의 희망찬 모습에서 우리는 밝은 내일을 봅니다. 어려울수록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의 꿈을 위해 한전이 함께합니다.



장영운 군의 작품을 함께 즐기는 농구대

한국전력
<http://www.kepco.co.kr>